

칼럼

서윤정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후보자의 매너, 유권자의 매너

“manners maketh man”
 몇 년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락영화 『킹스 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대표적 인 명대사이다. 아니 이 영화가 위의 세 단어의 명대사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다소 피가 튀기지만 화끈하고 유쾌한 이 영화에서 전형적인 영국 신사로 나오는 콜린 퍼스의 대사이다.

매너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로서 태도의 보편적인 가치기준, 즉 ‘예의범절’을 뜻한다. 즉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인간의 행동방식을 말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너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인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눈살이 찡푸려진다.

매너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일이 있다. 몇 년 전 직접 면전에 대해 매너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지역 쇼핑몰을 찾았다.

평소 내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지만 결혼식이니 화려하게 좋겠다 싶어 빨간색 트윈드 자켓을 골랐다. 트윈드 자켓과 블라우스를 세트로 사고, 50대 여주인의 적극적이고 유려한 화술에 넘어가 추가로 가디건류의 옷을 2개 더 구

입하였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비슷한 자켓이 있어서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니트류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다른 옷으로 교환하면 된다지만 소심한 마음에 뺨까지 사들고 매장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 옷을 내놓자마자 주인은 환불하러 왔다고 지레짐작하고 불같이 역정을 내는 게 아닌가.

다짜고짜 매너없게 ‘이게 머하는 짓이냐’고 핀잔을 늘어놓았다. 그것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연신 “손님, 잠 매너 없네요” 순간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였나 혼란스러웠다.

주인은 이어서 ‘남의 장사 망칠 일 있냐! 지금은 너무 기분 나빠서 절대 환불해줄 수 없으니 이따 다시 오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집에 비슷한 자켓이 있다며 핸드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보여주기가 하였다.

어제 산 옷들 전부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비슷한 옷이 있어 자켓만 다른 옷으로 교환할 생각이었는데 그럴 마음이 싹 가셔버렸다.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아무리 생각해보자 그 여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그 매장에서 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기분 나쁘다고 손님을 내쫓다니 그런 근시안적 사고로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비단 나한테만 그랬을까, 그 주인은 판매할 때는 ‘손님에게 딱이다. 맞춤형 잘 어울린다’ 등의 온갖 감언이설로 아첨해다가 혹여 교환·환불하러 오는 고객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며 저주를 퍼부어 사람임에 틀림없다. 옛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정말 옛 말은 테트리스 조각들처럼 우리 생활에 딱딱 들어맞는다.

이처럼 사람의 달라지는 태도를 확실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선거가 있다.

바로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전과 당선 후의 모습이다. 선거운동 시기에는 한 표라도 아쉬워해도 뜨기 전 새벽부터 주요 교차로나 네거리에서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시장마다 찾아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시장 음식을 맛보며 소탈한 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과연 그럴까!

우리는 그동안 TV뉴스나 인터넷 등에서 정치인들의 달라진 모습, 거만한 행태를 무수히 보아왔다. 농구경기의 용어인 ‘노룩

패스’를 전국민에게 알려준 정치인,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지역 정치인, “내가 누구인지 몰라?” 전화로 본인을 몰라보다며 주민센터에 쫓아가서 직원의 머리채를 잡은 정치인 등 인터넷에는 정치인의 갑질 기사가 넘쳐난다.

후보자가 지켜야 할 매너는 본인의 뽑아준 유권자가 실망하지 않도록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선거운동 당시처럼 유권자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매너는 무엇일까?

선거 후보물을 보기도 전에, 누가 나왔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고, 선거일 여행을 간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던 우리의 모습, 선거 후에는 정치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 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더 이상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안하무인 갑질 정치인, 또는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역민을 대하는 참일꾼 정치인 이든 모두 유권자의 손에 달린 것이다. 목에 기부수를 장착하고 돌변하는 후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든, 표를 받은 만큼 성실히 일하는 참된 일꾼을 맞든 모두 우리의 역량에 달렸다.

봄을 알리는 산수유, 팝콘같이 함박 피어난 벚꽃, 알록달록 철쭉 등 아름다운 꽃이 온 대지를 감쌀 때 우리의 작은 투표용지 한 장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社 說

설 명절 ‘인터넷 사기’ 유의해야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명절 대목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횡횡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경찰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인터넷 사기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시민 각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인터넷 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개인이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인터넷사기 발생 건수 2018년 11만2000건에서 지난해 13만6074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여행상품 판매 등을 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명절선물 등 설명절 관련 상품 판매 사기 ▲랜더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사기 ▲공연터켓 등 구매대행 사기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

미싱·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캡’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강화가 설명절 인터넷 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민박 · 펜션 안전관리 생활화

올 가을도 계속,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을 찾는 피서객이 많을 것이다. 피서지 주변에 있는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화재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웰빙 열풍에 따른 여가문화의

확산과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펜션 등 고급 민박시설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영업형태의 변질 내지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되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 관계자는 피서철

을 앞두고 전기·가스·유류 등 화기취급시설 안전 관리상태, 각동과 층마다 소화기 비치 및 관리상태, 화재 시 연소확대요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종업원에게는 화재발생시 투숙객 대피 요령,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방법 등 안전교육도 실시해 두도록 하자.

또한,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련회 등을 이유로 집을 떠나 호텔이나 여관, 민박 등에 처음 가보는 투숙객들은 비상구, 피난 계단 등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고, 모기향, 담뱃불, 촛불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침 전에는 반드시 완전 소화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백중희 / 소방안전관리자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7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